

검정색 우산

김용주

창으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을 잔뜩 물었다. 비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매일 열다시피 하는 전화기 속 ‘오늘의 날씨’ 앱을 불러올렸다. 비가 내릴 확률은 48%.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비가 오면 귀찮아지는 상황이 생기려나 하는 걱정이 집안을 물들인 젖빛 습기처럼 나의 마음을 잠식했다. 나는 서둘러 옷을 꿰어 입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엄마는 언제나 약속된 시간보다 십여 분 먼저 나와서 기다린다.

시동을 켜다 운전대 옆 포켓에 작게 접힌 해수의 우산을 발견했다. 해수는 오늘 우산 없이 출근한 것이다. 비가 오면 어떡하지, 마중을 가는 게 좋을까, 다른 약속이라도 있다면 내가 기다리는 게 불편하겠지, 이따 전화라도 해 볼까…… 내 생각은 저녁의 거리로 달렸고 가슴에서 작은 진동이 따라 달렸다.

엄마는 아파트 동 입구에 서 있었다. 시애틀 집 마당에 심어진, 둥그렇게 아래로 휘어진 기다란 가지들을 가진, 키 작은 단풍나무 같은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 뼘 낮아진 시선으로 나를 찾으면서. 지나온 시간의 무게일까? 각이 없이 굽은 어깨는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 젖은 구름을 담아 살짝 알싸한 내음을 풍기며 차 안으로 들어왔다.

아침 식사는 했어요?

응, 먹었지.

……

나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뭘 더 말해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한강대교 양 차선엔 차들이 경쟁하듯 차선을 바꾸고 있었다.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언가 뇌에 응어리져 박혀 있는 사람들 같았다. 차들은 헤집고 밀치며 나아갔다. 신호대기 상태에서 사방에 늘어서 있는 차들이 시애틀에서 주말마다 가던 대형 마켓 야외주차장을 연상시켰다.

차선을 바꾸기 위해 오른쪽을 주시하던 중 엄마의 거칠고 주름진 얼굴에 눈이 닿았다. 먼 하늘을 바라다보는 듯 엄마는 얼굴을 차창에 바짝 기댄 채 얇은 호흡으로 무심한 공기를 밀어 올리고 있었다.

오늘 비 온대니? 어째 비 올 하늘이다.

엄마는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나를 의식했던 것 같다.

흐음, 그러게.

해수는 출근했니?

응, 그러엄. 몇 신데.

우산은 챙겼나 몰라. 비 오면 난감할 텐데.

……젊은데 뭐.

바로 앞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어 온 차에 놀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딱 막힌 도로 탓에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차는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엄마는 나 끄덕없어야 하는 태도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야, 야, 저 빌딩은 언제 저렇게 올라가 있다니?

엄마는 내친김에 나를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대학 다닐 때는 저어기가 전부 암 것도 없었어. 야, 저기 저쪽 길로 학교에서 나와서 주욱 걸어 다니고 그랬어. 저 빌딩들이 없을 때는 종로까지 자주 걸어 다녔지, 그래도 멀다는 생각은 안 했어. 지금은 복잡해져서 좀 그렇지…… 야아,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엄마가 대학 다닐 때는 걸어 다닐 여유가 있었어.

말문이 트인 엄마는 오늘도 어제처럼, 그제와 같이, 많은 말을 했다. 과거의 자신을, 지나온 시간 동안의 성장과 변화를. 지나치는 도시 풍경 안에서 엄마는 과거의 기억으로 필름을 돌린다. 영상 안의 그림과 사람들은 오로지 엄마의 흐릿한 기억으로만 만들어진다. 내가 한국 땅 서울에 온 이래로 쭉. 오늘도 쉬지 않고 엄마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건넸다. 자신의 기억이 지금의 다른 풍경과 싸우는 것 같았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벽에 걸린 먼지 앉은 장식용 사진을 보듯 빛이 없는 눈과 잠깐의 숙면 후 갼 것처럼 붉은 불을 가진 한의사는 늘 같은 말로 환자를 맞았다.

아유,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는 침 맞고 나서 한결 가벼워져서 아파트 단지를 다섯 바퀴나 돌았어요. 그동안 많이 못 나가서 답답했는데, 어제는 좀 걸었네요. 확실히 많이 좋아졌나 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한 달여 만에 엄마의 일기예보 같은 매일의 걷기 속보가 또 다른 청취자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엄마는 아프지 않으면 매일 걸었다. 그리고 매일 스마트폰 대화창으로 그 소식을 전했다. <오늘은 아파트 뒷동산에 걸어갔다 왔어. 날이 좋아서 그런지 테니스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거기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구경하다 왔어.>

한 날, 더운 날, 서울 어느 산책로가 있는 야트막한 동산. 엄마는 땀에 젖어 똑같이 땀에 젖은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었다. 나는 시애틀에서 동네 뒷산 언덕에 자리한 테니스장 구석 벤치에 앉아있는 왜소한 노인을 떠올렸다. 챙 넓은 모자 아래 별게진 얼굴로 앉았던 엄마의 희미한 미소를 상상했었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되니 조금 덜 걸으시고 아프시면 바로 다시 오세요. 나이가 있으시니 예전으로 돌아간다고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한의사에게 감사하다고 했고 한의사는 네, 하고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않았다.

엄마, 점심 뭐 드실래요?

응응, 지난번 너 한국 왔을 때 먹었던 그 뭐니? 그게 뭐더라…… 응응 대구. 대구탕. 이가 부실해서 다른 건 다 그렇고, 그 대구탕 생각이 가끔 나더라.

오랜 시간 침 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나온 엄마를 데리고 대구탕 가게를 찾아갔다. 엄마는 서울에 다니러 온 나와 함께하는 점심엔 언제나 국물이 많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면 종류나 쌀밥을 말아 목으로 넘기기 좋은 탕류를 먹는다. 엄마는 내려앉은 잇몸과 약해진 이로 짧게 끊은 우동을 흘려 넘기며, 푹 익혀 부드러워진 생선 살을 살살 씹으며, 주름진 입술 사이로 많은 옛 기억을 쏟아낸다. 엄마의 약해진 기억 속 추억은 오로지 엄마만의 이야기로 각색되어 나에게 전달된다. 대구탕 국물에 밥을 조금씩 말아 먹으며 엄마는 쉬지 않고 얘기를 했다.

나는 대구 살을 발라 엄마의 대구탕 그릇 속에 넣으며 거뿔거뿔 김버섯이 덮인 얼굴과 주름이 잡힌 입술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아니야 너 먹어, 응? 엄마는 내가 넣어주는 대구 살이 좋은 건지 부담스러운 건지 씨익 웃었다.

두어 해 전,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엄마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다. 운동화 하나로 서울 도심 곳곳을 쏘고 다니며 지낸다고, S 워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걷기 편한 운동화를 신는다고 발을 들어 보이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자랑했다. 문화센터를 비롯해 이곳저곳 다니는 모든 곳을 영상을 보여 주듯 세밀히 나에게 설명했었다. 컴맹이 되기 싫어 컴퓨터를 배운다며 눈을 반짝거렸고 전화기로 짧은 영상물을 만든 것을 소셜미디어로 보내 주며 우쭐해 했다.

영상은 엄마가 다녔던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음악 한 곡 안에 차례차례 떠오르는 뮤직비디오였다. 영상 안에 자주 출몰하는 엄마는 꽃을 너무나 사랑해 꽃을 껴안은 소녀였다. 분홍색, 보라색, 하얀색…… 색의 향연 속에 언뜻 우는 것처럼 보이는 어설픈 미소의 그녀는, 엄마 자신에게겐 나의 딸 해수의 모습으로 느껴질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 미래를 예견했다.

그리고 일 년 전, 여름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 나는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 엄마의 생일을 맞아 해수와 함께 세 사람이 일본 여행을 하기로 예약해 놓고서였다.

<엄마, 혹 몸이 안 좋거나 하면 미리 얘기해요. 취소해도 되니까, 응?>

<걱정 말어, 엄마 아직 튼튼해. 오늘도 신도림 사는 친구네 갔다 왔다. 전철을 두 번이나 갈아 타고 다녀 왔어. 아무렇지도 않아.>

엄마의 메시지는 엄마 튼튼해, 엄마 행복해, 라는 글귀를 머리에 달고 있는 두 개의 곱슬머리 아줌마 이모티콘과 함께 날아 왔다.

<여행 준비는 다 했어? 건강은 괜찮은 거지?>

<응, 괜찮아. 가방은 진즉에 다 싸 났어. 엄마 친구들이 부럽다고 난리다.>

곱슬머리 아줌마는 하트 모양의 두 눈과 엄마 기대돼, 라는 문구를 달고 있었다.

그 며칠 뒤, 활짝 들어 올린 비행기 창 가림막 너머로 잔뜩 먹구름을 달고 있는 하늘을 보며 일본에 도착했다. 비행기는 흐릿한 일본 N 공항 내로 부드럽게 착륙했지만, 나는 이 여행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휘저어 놓은 마당 물구덩이처럼 거칠고 짙은 구름 덩이가 군데군데 박힌 하늘과 절뚝거리는 엄마의 걸음이 교차하며 가슴 깊이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려 했다.

여행 가기 전날 뒤편 산책을 다녀왔을까. 평소처럼 걷기 운동이었다고는 해도 특별한 날 하루쯤 그만뒀도 됐을 텐데. 엄마는 전날 산책 중에 돌부리 하나가 잘못 밟혀서 왼발을 살짝 접질렸다고 했다. 괜찮아질 거니 걱정말라, 신경 쓸 거 없다, 고 했다. 절뚝거리지 않으려고 애써 멀쩡한 오른 다리에 힘을 더 주니 걸음은 부자연스러웠다. 엄마의 얼굴엔 피곤이 노인의 상념이 되어 잠겨 들어가고 있었다.

어머, 어머님 걷는게 왜 그러세요? 다리 다치신 거 아니에요?

여행사 가이드는 서른 명 남짓한 단체 관광객 무리를 공항 내 식당으로 인도하는 중에 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서 있다가 엄마의 걷는 모양새를 보게 된 참이었다. 엄마가 일행을 따라 붙으려 어긋나 가는 순간 가이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가 여행이 원활해지지 않을 걸 걱정한다는 생각이 들어 애써 물고 있던 생굴 속 찹찹한 이물질을 와그작 씹은 듯 언짢아졌다.

아유, 괜찮아요. 살짝 접질렸는데 금방 괜찮아져요.

엄마는 괜한 소동으로 여행 초기의 분위기를 깰 수 없다는 생각인지 손사래를 치며 가이드의 눈을 마주 보지 않고 답했다. 이내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호들갑을 떨어서 내 걸음을 지금 이 무리에서 눈에 띄게 만들지 말라, 라는 암묵적 명령의 눈빛을 가이드에게 한번 쏘아 보냈다.

식사하는 내내 엄마의 어색한 걸음이 신경 쓰였던 나는 식당을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잡화점 외부에 진열된 긴 우산 하나를 샀다. 가이드가 옆에 와 참견했다. 어머 잘 사셨네 안 그래도 지팡이가 있었음 했는데. 그러곤 가이드는 여행객 무리에게 고함을 쳤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버스타러 가실 거예요. 앞 사람 꿈무니 잘 보고 따라오세요.

엄마, 이걸 짚으면서 걸어 봐. 좀 걷기가 수월할 거야.

나는 살짝 부어오른 발 근육이 안정될 때까지 긴 우산이 지팡이 역할을 해 주리라 생각했다. 타국에서 당장 지팡이를 구하러 다닐 수도 없고 그나마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이니 우산을 들고 다녀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우산 머리 끝부분이 미끄러지는 재질은 아닌지 두어 번 짚어 보고 해수더러 한번 봐 보라 하면서, 짚을 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둥근 손잡이를 가진, 그 중 가장 길이가 긴 걸로 골랐다.

사람들은 두어 명씩 열을 지어 이동하며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버스에 올라탔다. 하늘은 여전히 짙은 회색 구름을 잔뜩 달고 있었다.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는 엄마에게 보조를 맞추느라 우리는 거의 무리의 마지막에 버스에 올랐다. 그로 인해 한참을 들어간 뒤쪽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나마도 해수는 더 멀리, 맨 뒤 바로 앞자리에 덩그러니 혼자 앉게 되었다.

나는 해수가 잘 앉아 있는지 불편한 곳은 아닌지 통로 맞은편 옆자리에 끼름칙한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연거푸 돌아보며 해수의 동작과 눈빛을 읽으려 했다. 해수는 왜? 걱정할 일 아니야, 라는 눈빛으로 양어깨를 살짝 들어 신호를 보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엄마의 좌석벨트를 채워준 후, 통로 건너편 자리를 무심히 쳐다봤다. 젊은 남자가 혼자 앉아 있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동공이 살짝 커지더니 남자는 황급히 얼굴을 돌려 창밖으로 시선을 두었다. 해수 또래처럼 보였다. 그도 해수처럼 앞자리의 부모를 따라온 듯 보였다. 여자인 해수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괜한 원망의 눈빛을 쏜 것은 아닌지, 나는 살짝 미안해졌다. 그럼에도 한 번 더 뒤를 돌아 해수를 쳐다봤다.

해수는 한 손으로 귀에 이어폰을 꽂으며 전화기를 보는 듯 시선이 아래로 쏘였다. 비가 올 듯한 날씨도, 할머니의 절뚝거림도, 이곳이 타국이라는 점도 해수에겐 그저 일상처럼 특별할 일이 아닌 것 같았다.

어제 전화해 말해 줬으면 바로 병원이라도 다녀왔을 텐데. 많이 안 좋아지면 어쨌. 여행 전날인데 웬만하면 걷기는 하루 쉬지, 뭣 하러……

나는 우산을 앞의 두 좌석 사이 틈에 걸쳐 놓으며 뿌루통하게 쏘아붙였다. 엄마는 좌석 등 그물망에 꽂혀 있던 생수병을 들고 그걸 여느라 애를 먹는 중이었다. 나는 엄마 손에서 생수병을 가볍게 낚아채 열어 건네주었다. 엄마의 손바닥에 작은 알약이 보였다. 무슨 약이야, 라고 묻자 엄마는 혈압약이라 했다.

혈압약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거야? 예전엔 혈압이 낮다고 하지 않았나?

으응, 몰라 나도. 살짝 높는데 사람들이 먹는 게 좋다 그래서.

목을 뒤로 젖혀 약을 삼키고 나를 쳐다 보는 엄마는 쓰디쓴 약을 먹어 울상이 된, 이마와 미간에 굵은 주름이 있는 늙은 아이였다. 금방 삼켜질 작은 알약 하나가 뭐 그리 쓴맛을 일으켰을까, 엄마도 참 엄살은. 나는 조금 더 편잔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꿀꺽 침을 한번 삼켰다.

버스는 좁은 도로를 활기차게 내달렸다. 짙은 색 자외선 차단 필름이 부착된 너른 창으로 아침임에도 축축한 어둠이 오기 전처럼 괴괴해 보이는 마을과, 흑백 화면 속이지만 푸른 줄기와 잎이라 짐작할 만한 녹차밭을 교대로 보여 주는 다큐 영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간간이 중년 남자가 뱉는 가래 기침 소리와 가이드가 운전사와 주고받는 일본어 대화만 들릴 뿐, 사람들은 아직 여행의 흥분을 얘기할 거리가 없어 입을 열지 않았다. 조용하고 진지한 다큐멘터리 상영관이었다. 몇몇은 여행의 설렘으로 밤새 설친 잠을 뒤늦게 몰아 자고 있었고 엄마도 곧 그중 하나가 되었다.

해수는 여전히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깔아 놓은 게임을 하는 걸까,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는 걸까? 해수의 얼굴은 무심함 그 자체였다. 한 번쯤 봐주기를 기다리다 포기하고 나는 몸을 돌렸다. 갈증이 났다. 물병을 찾으려다 잠든 엄마의 얼굴을 흘끗 쳐다봤다. 지난번 서울 방문으로부터 고작 일 년여 만인데도 엄마는 몰래 십 년을 더 산 듯 얼굴에 그득한 잔주름을 그리며 잠들어 있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었던 걸까, 도대체 발이 얼마나 안 좋은 거야? 며칠 전 만났을 때는 걸음걸이가 어땠는지 기억해 보려고 했으나 그저 팔순이 가까운 노인 걸음이라니 했던 생각이 들었다.

오사카의 여름은 짙은 회색 구름이 품는 풍경과 간간이 내리는 보슬비의 경주로 이어져 갔다. 가느다란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오사카성을 보러 갔다.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깔린 널따란 포장도로를 같은 여행사 관광객들이 무리 지어 걸을 때도 세 사람은 맨 뒤에서 따라가다 뒤처지기를 반복했다. 기다란 무리가 커다란 점처럼 오프라들어 가이드의 설명을 들을 때도 우리는 뒤처져 있다 힘을 내 다가가곤 했다. 그러다 그 점 꼬트머리에 안착했다 싶으면 다시 점은 섬표처럼 꼬리를 흔려 떨어뜨려 놓고 다시 두터운 선이 되어 천천히 사라져 가 버렸다. 내게 팔을 맡기고 엉거주춤 느리게 걷던 엄마는 무리가 만든 원둘레에 서서 잠시 주어진 짧은 휴식에 거친 안도의 한숨을 쉬곤 했다.

천수각은 들여다볼 수 없었다. 패키지에 없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다. 대신 여행객들에겐 개별적 시간이 주어졌다. 우리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내부를 구경하는 대신 천천히 되돌아 나오며 사진을 찍었다. 해수는 내 전화기로 엄마와 나의 사진을 찍었고 엄마는 자주 서서 주변 풍경 사진을 찍었다. 나는 시시때때로 엄마의 팔을 잡거나 전화기 든 손을 잡아 주었다. 다른 여행객들이 성안을 관광하고 오는 동안 우리는 버스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우리가 버스에 오를 때쯤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미 당도해 있었다.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다. 버스 안 여기저기 각자의 짐가방에서 우산을 꺼내려 웅성거렸다.

한결 열린 회색빛 구름 사이로 그다지 환하지 않은 해가 비치던 다음 날 오후, 우리는 항구의 한 작은 카페에 앉아 간단한 여행 기분을 만끽했다. 비싸지 않게 여행 주제와 소재를 꾸리다 보니 하루의 반 정도는 그렇게 현지인들이 주말 휴식을 즐기러 나오는 공간에서 어슬렁대야 했다. 그날의 세 사람에겐 더없이 다행인 여행 시간이었지만, 오전에 광활한 녹차밭을 둘러 보고 왔던 다른 이들의 생각은 달랐는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해수에게 휴대전화를 내밀며 사진을 찍어 달라 부탁했다. 언젠가부터 해수는 관광객 무리가 가이드를 중심으로 원을 이루다 흩어지는 곳에서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전화기를 찾아들고 사진을

찍어 주었다. 가끔 혼자 떨어져 자신의 전화기로 사진을 찍을 때도 있었다. 해수는 지금 십의 분모로 보면 얼마의 분자 값을 가진 속도로 움직이는 걸까. 괜한 여행을 따라온 거라 답답해하면 어쩌나 걱정스러웠다. 해수는 여름휴가를 모조리 가족을 위해 써야 했고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시간을 들였다. 이십 대의 젊은이 두뇌에 가족이 차지하는 공간은 어느 정도일까. 나는 그때 혼자 떨어져 사진을 찍는 해수를 보며, 어쩌면 친구들이 보는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업로드하고 있을지 모를 아이를 보며, 내 이십 대는 가족이 얼마큼이었는지를 기억해 내려 했다.

그날 밤에 샤워를 일찍 끝내고 코를 골며 잠든 엄마의 발목을 들여다보며, 나는 아 하는 작은 탄성을 내뿜었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전날 샀던 물파스를 바르려다 던져두고 호텔 인근의 편의점을 다녀왔다. 좀 더 강력한 파스를 찾고 싶었다. 그리고 엄마의 보랏빛 발목에 ‘스트롱’이라 쓰여 있는 파스를 붙였다.

도톤보리 인근 호텔에서 나와 교토로 향하는 버스에서 엄마는 곤한 잠을 잤다. 아침 식사를 할 때만 해도 엄마는 재잘거리며 많은 이야기를 했다. 오사카성의 아름다움 같은, 길가를 따라 지어진 이국적인 나무집과 꽃향기가 담긴 호숫가 풍경, 끝이 보일 것 같지 않던 녹차밭의 푸르게 빛났던 땀방울 같은 적지 않은 소재와 장소를 기억하며 감동을 쏟아냈다. 분명 발목이 아파서 관광에 집중할 수 없었을 텐데, 맞은 편에서 묵묵히 밥을 먹는 나에게 쉬지 않고 여행 건문록을 전달했다. 이 여행이 매우 흥미로웠음을, 고로 자신은 친구들에게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갈 것임도 나에게 알렸다. 엄마는 그날 어디선가 아침을 먹고 있었을지 모를 진짜 여행가보다 더 열정적인 여행가였다.

청수사는 희뿌연 하늘로 우리를 맞았고 같은 버스 안의 여행객 모두는 모처럼 나올 햇살과 더불어 그토록 원하던 관광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흥분상태였다. 청수사로 가는 언덕길은 각종 상점이 양옆으로 늘어선 좁은 골목길이었다. 인솔자를 따라가기 위해 굳이 속도를 낼 필요 없이 모두 인파에 끌려 이리저리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거슬러 올라갔다. 모처럼 엄마가 다른 이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 나는 조금 안심이 됐다. 아마도…… 그런데도 엄마는 청수사 입구 계단에서 주저 앉아 버렸다.

너희들만 다녀와, 엄마는 여기서 좀 쉬고 있을게.

하늘이 밝아졌고 관광하기에 딱 좋은 날이었다. 해수와 나는 모처럼 다른 이들과 보조를 맞춰가며 때론 진짜 여행자처럼 사진을 찍으며 사당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황홀한 옛 자취에 굉장하다는 고루한 감탄사를 날리면서 출발하기 전 계획했던 그 여행을 했다. 그래서였는지 청수사 본당은 경외감이 들어 시종일관 입이 벌어졌다. 본당을 나와, 건기 적당한 흙바닥을 지나 나무로 지어진 옛 건물에 들어섰다. 전망대인 듯했다. 난간에 서서 사진을 찍던 해수가 나를 불렀다.

엄마, 여기 서 봐. 사진 잘 나올 것 같아.

지대가 제법 높아서 나무 난간 저 너머로 지나왔던 입구를 비롯한 마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해수의 전화기를 똑바로 바라보며 손으로 브이 자를 그리기도 하고 한쪽 다리를 살짝 구부리고 삐뚜름히 서서 이를 드러내 웃기도 했다. 난간을 따라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니 저 멀리 가느다란 서너 개의 긴 물줄기가 나오는 신기한 벽이 보였다. 물줄기 뒤 바위 담벼락에 선 사람들이 그 물줄기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신기해하며 해수는 연신 전화기 카메라 버튼을 눌렀다. 해수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걸어온 쪽으로 뒷걸음을 쳤다. 좀 전에 봤던 마을 풍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좁은 골목길 속 수많은

인파들, 그 길들을 살짝 덮고 있는 청수사 입구 문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계단인 듯 보이는 곳.
엄마는 여전히 저기 앉아 있을까.

해수야, 저기가 입구 쪽이니?

응? 글썄. 해수는 사람들이 물줄기에 소원을 비는 것 같은 모양새를 찍느라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해수야, 그만 내려 갈까?

응? 왜? 아직 반도 못 본 것 같은데.

할머니 혼자 오래 뒤서 좀 그러네.

챙 넓은 모자를 썼음에도 해를 가리려 한 건지 엄마는 지팡이로 쓰던 검은색 우산을 쓰고 아래쪽 계단 귀퉁이에 앉아 있었다. 큰 검정 우산이 엄마를 고스란히 입에 넣고 있었다.

해가 뜨거워서 우산을 썼어야, 이런 게 다 쓸 데가 있어. 야, 안 그래도 잠깐 일어나서 저어기 입구 문에서 사진도 찍었어. 가이드 아가씨가 지나가길래 찍어 달랬어.

해수는 엄마의 휴대전화로 엄마와 내가 청수사 기둥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찍었다. 우산은 내 오른손에, 엄마는 나의 왼팔을 붙잡고 있었다.

엄마는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왼쪽 발목에 종아리 부분까지 깁스를 했다. 인대가 늘어나서 한동안 깁스를 한 상태로 두고 봐야 했다.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한동안 엄마는 깁스를 한 채 집에서 요양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엄마는 깁스를 풀었고, 오래 움직이지 않았던 발목을 다시 쓰기 위해 재활치료를 받았다. 엄마의 S 워 브랜드 운동화는 먼지가 앉은 채 신발장 구석에 처박혔다. 엄마의 소셜 활동은 예정에 없던 긴 휴가 동안 제 페이스를 잃었다.

미국에서 나는 전화기 화면에서 보이던 엄마의 중계방송과 오른손으로 나뭇가지 위 꽃을 잡은 엄마의 울 듯한 미소를 한동안 볼 수 없었다. 엄마의 영상은 깁스를 한 채 만들어 보내온 일본 여행 영상이 마지막이었다. 영상 속 해수가 찍어 주었던 사진들은 조용필이 부른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에 맞춰 선선히 들리고 점점이 나갔다. 마지막 장면은 검정 우산 속 쪼그린 채 한껏 멋을 부리며 앉아 있는 엄마였다. 아니 다시 보면 청수사 입구문이 주인공인 채 귀퉁이에 우산을 쓴 작은 소녀가 쪼그려 앉아 있는 그림이었다. 다시 엄마의 중계방송이 뜨문뜨문 생 났을 때, 나는 뭔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이상했다. 엄마의 곱슬머리 아줌마 이모티콘이 보이지 않았다.

엄마가 몹시 아프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것은 한 달 전쯤이었다. 산책을 다시 시작한 이래로 제법 속도를 내던 중계방송이 일주일 정도 없고 나서었다. 재활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허리가 안 좋아져서 걷기가 힘들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 밤에 꿈을 꾸었다. 청수사 계단에 쪼그려 앉은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날아서 청수사에 올라가고 싶어했고 우산이 날아 주길 바랐다. 나는 우산이 날도록, 엄마를 청수사 문 지붕 위로 올려다 주기를, 그래서 보지 못했던 청수사 안쪽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주문을 걸었다. 하지만 검은 우산은 날지 못했고 엄마를 삼키고 있었다.

마침 해수가 일이 너무 바빠져 한동안 미국에 갈 수 없다는 전갈에 나는 해수를 보겠다는 핑계를 대고 며칠 전 다시 서울에 왔다. 엄마의 전화기에 곱슬머리 아줌마 이모티콘보다 더 귀여운 것을 사서

끌아주고 싶었다. 여름이 시작됐으니 여러 색 꽃에 둘러싸인 엄마의 사진을 찍어 주고 싶었다. 영상을 만들게 해주고 싶었다.

오빠와 엄마가 같이 사는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엄마는 말을 멈췄다. 구불구불 단지 안 몇 개의 동을 지나치는 동안,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과 엄마들을 보면서,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엄마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엄마, 침 맞느라 고생 많았어요. 들어가서 폭 쉬어요. 오늘은 걷기 하지 마시구, 응?

응응, 그래. 그동안 엄마 병원 데리고 다니느라 너도 수고했다. 며칠 뒤에나 보려나? 너 가기 전에?

집으로 올라가는 입구 유리문 앞에서 엄마는 나를 배웅했다. 손을 흔드는 엄마는 등근 어깨를 가진 작은 아이 같았다. 오던 길로 빠져나가기 위해 차를 뒤로 뺀 후 왼쪽으로 돌리며 나는 다시 엄마가 서 있는 곳을 확인했다. 작은 챙이 나 있는 모자를 쓰고서, 좀 전과는 다르게 울 듯한 얼굴을 한 작달막한 아이가 그대로 서 있었다. 어쩌면 아이가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갈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앞유리창으로 빗방울 두어 방울이 떨어졌다. 곧이어 와이퍼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조수석 창을 내리고 엄마를 향해 소리를 지르려다 말고 차를 오른쪽으로 다시 돌렸다.

엄마, 차 타요.

응응, 왜?

비도 오니까 비 구경하면서 드라이브나 가지 뭐.

엄마는 어 그럴까 그럼? 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고 후다닥 앉았다. 마치 소나기를 피하고자 빨리 타야 한다는 생각인 듯 움직임은 오늘 어느 시간보다 급했다.

엄마, 나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가 볼까? 거기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지?

응응, 그러럼. 엄청 변했지. 그때 우리 고생하고 살던 때랑 요즘 어디 비교가 되나. 거기도 땅값이 많이 오르고 아파트도 많이 생겼어야.

아파트 단지 정문을 빠져나가기 위해 입구 바리케이드가 열리길 기다리며 나는 앞길에서 걸어오는 두 노인을 응시했다. 차가 서 있는 것을 본 할아버지가 인도로 방향을 틀며 할머니에게 얼굴을 돌려 뭐라 말했다. 할아버지가 먼저 인도에 올라섰다. 뒤따른 할머니는 한 발을 올리기 위해 다른 쪽 허벅지에 손을 짚으며 허리를 약간 수그리는 자세를 취했다. 할아버지가 돌아서 할머니의 한 손을 잡고 인도에 쉽게 올라서도록 도왔다. 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후 천천히 입구를 빠져나왔다.

엄마!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 왜 재혼할 생각을 안 했어? 나이 들어 노인 둘이 알콩달콩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이던데.

응? 아…… 애는. 당연한 거지. 니들이 어렸으니까, 니들 키우기 바빴지.

근데 나 그 아저씨 가끔 기억나던데. 왜, 나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가끔 오셨던, 그 엄마 다녔던 국민학교 동료 쌤 말야. 우리 집에 자주 왔었잖아. 언젠가 같이 해수욕장 갔던 기억 있는데……

아, 그 양반…… 진즉에 죽었지. 너 해수 낱을 때 즈음인가.

진짜아, 벌써 그렇게? 어디 아프셨나?

암이었대. 그 양반은 우리 해수욕장 다녀왔던 해에 학교 그만두고 얼마 안 있어 결혼했지. …… 너 해수 낱으려고 우리 집에 와 있을 때까지, 아마. 그 이후에 죽었다고 들었어.

그래? 나 해수 낳고 엄마 집에 있을 때, 왜 엄마 하루 밤늦게 들어온 날 있었잖아. 내가 그날 엄마한테 왜 늦었냐고, 나 걱정시켰다고 성질내고. 다음 날 그 아저씨 만나고 왔다고 엄마가 나한테 실토했잖아, 응? 그럼, 그 당시에?

응, 그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찾아왔었어. 학교에 수소문해서. 덕분에 학교에서 좀 안 좋은 소문에 한참 시달렸어야. ……근데 나는…… 안 찾아왔었으면 했어. 그게 그렇더라.

나는 정지 신호에 서서 잠시 엄마의 옆얼굴을 바라봤다. 엄마는 지금 나에게 전달할 과거를 다시 떠올리는 중일까, 아니면 무덤덤한 무채색이 된 기억을 더듬는 중일까. 엄마의 옆얼굴로 아직 빛이 남아있는 한낮의 그늘이 사선을 그었다.

운전석 앞 유리창엔 보슬비가 점점이 내리쬐히고 와이퍼는 빠걱거리며 그들을 훑었다. 다시 쌓이는 점점의 기억들은 현실음을 내는 무언가에 의해 부서져 내렸다. 밀리며 사라졌다. 투둑 툭, 작은 물방울이 터지며 만드는 물 도화지 위로 서른 중반의 엄마가 붉은빛 수줍은 옆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는 곁에 서 있는 누군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열 살의 나는 엄마의 팔을 잡아끌며 엄마가 돌아보도록, 나를 보도록 불렀다. 그리고 다시 물 도화지는 끼이익 지워졌다.

차는 올림픽 대로를 타고 어느 한 대교를 지나, 다른 차들과 섞여 강북 강변도로 위를 서다 가다 흘러갔다. 일산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어느 순간 다시 어느 대교를 건너고 우리가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 왔다. 엄마는 대학 시절 이야기부터 나와 오빠의 어린 시절까지 수많은 얘기를 했다. 언제나 조금씩 각색이 되었지만 새로이 들리지는 않았는데, 어쩌면 엄마의 기억력은 더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는 언제부터인지 그쳤고, 해는 아직 남아 있었다. 아직 여름이니까.

해수야. 엄마, 할머니 진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너 곧 퇴근할 거면 엄마가 데리러 갈까? 뭐 하리요. 차 막히고 힘들 텐데.

응, 비도 왔고 해서. 답답한 전철 타고 오기 웅색할 것 같아서.

아냐, 엄마. 나 좀 더 일해야 할 거 같아. 그냥 들어가요. 조심하구.

아파트 유리문 입구 안으로 사라지는 엄마를 보고 난 후, 나는 해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데리러 가고 싶었다. 앞유리창으로 남은 하루해의 여분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내 입술을 간질였다. 나도 엄마처럼 말문이 트이고 있었다.

일이 많이 남았어? 어제도 늦게 들어왔는데…… 내일 하면 안 되나?

엄마, 잠깐만……

전화기 너머로 해수가 누군가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웅얼웅얼. 아이는 전화기를 가슴에 품은 듯, 나는 머리에 헤드셋을 쓴 귀가 되어 버렸다.

엄마, 다시 전화할게. 우선 들어가, 응?

전화를 끊고선 비가 더는 안 내리길 바라며 운전석 옆 포켓에 꽂힌 우산을 내려다봤다.

냉동실 안쪽에서 덩어리진 양지를 발견했다. 더 오래 두면 맛이 변할 거 같아 못국을 끓이려고 했다. 전자레인지로 살짝 해동 시켰다. 곁에만 해동이 되어 단단해 보였지만 웬지 이대로도 잘 썰릴 것 같았다.

부드럽게 들어가던 식칼이 단단한 부분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미끄러져 고기를 누르고 있던 왼손 검지를 비껴갔다.

왼손을 심장이 있는 위치보다 더 높이 올리고 아무렇게나 말아 권 휴지로 검지를 세게 눌렀다. 너무 아파서 곧 오른손의 힘을 풀었다. 선명한 붉은 피가 빠르게 휴지로 번져갔다. 다시 힘을 쥐 눌렀다. 개수대를 등지고 쭈그려 앉은 채 무릎에 양팔을 올리고 천정을 향해 치켜들며 고개를 숙였다. 육신거리는 게 심해지면 오른손 힘을 조금 풀고 곧 다시 적당한 힘을 들여 피가 멈추길 기다렸다.

두 눈에서 한동안 눈물이 길게 흘렀다. 눈에선 눈물이 주욱 계속 흘러 내렸지만 흘쩍거리진 않았다. 운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십 여분이 지났던 것 같다.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피로 범벅이 된 휴지를 떼어내고 개수대에서 흐르는 수돗물에 베인 왼손 검지를 씻었다. 달라붙은 휴지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피가 조금씩 베어져 나왔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베인 곳을 다시 누르며 남은 손가락과 입을 이용해 약상자에서 가장 큰 밴드를 찾아 감았다.

저녁때가 지나자 베란다 유리창으로 검은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낮 동안 흐지부지 내리던 비가 캄캄해지니 세차게 바뀌었다. 그리고는 곧 멈춰버렸다. 동이 난 듯 보였다.

아홉 시가 넘어 들어 온 해수는 그 비를 만났다고 그래서 마을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쫓딱 젖었다고 말했다. 아유, 엄마한테 전화하지 그러면 바로 나갔을 텐데, 라고 하자 뭐 하러, 이까짓 거 일도 아닌데 라고 통명스레 뱉고는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갔다. 뭇국에 밥을 말아 늦은 저녁을 먹으며 해수는 내 손을 봤다. 응? 엄마 손 베었네 라고 물었고 나는 응, 별거 아냐 라고 답했다.